

##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 5.18 광주민중항쟁 37주년 기념예배

### 37th Anniversary of May 18 Gwangju Uprising



일시: 2017년 5월 14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 5.18 광주민중항쟁 37 주년 기념예배

추모의 묵상----- 다함께

5.18 광주항쟁정신의 촛불을 밝히며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누이의 헌혈가" (시, 김해화)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삼촌" (시, 이성부)

하늘(역사) 뜻 사람(민중) 뜻 나누기 ----- 김동균목사

화두: "5.18 광주민중항쟁, 역사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눔의 이야기: 창세기 4,9-10 & 예언자 아모스의 선언 5,24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광화문 이순신" (시, 최두석)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민중항쟁노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 한 마음 한 노래 (시 Poem)

### 누이의 헌혈가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조국의 총칼에 찢겨  
오월 푸르름 한가운데가 질퍽이도록  
뜨거운 피를 쏟으시다가  
뜨겁던 가슴이 식어간다고  
우리들의 도시가 외쳐대는 오후에  
당신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피어린 거리를 지나 찾아간  
대학병원은  
우리들의 주검과 신음으로 출렁대고 있었어요

오빠 보셨지요  
제 가느란 팔목에서 흘러나가던 영산강의 마음  
저의 꿈은 먼 훗날 착한 지어미  
하늘처럼 눈이 맑은 아들 딸 낳아  
이 땅의 자유를 지키는 아들이 되고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는 것  
그 꿈도 식지 않고 흘러 나가는 것  
오빠 보셨지요

지금도 들리는 총소리 총소리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누구의 가슴을 향해  
저렇듯 싸늘하게 총을 쏘아야 하나요

아아  
귀를 막고 돌아선 해지는 거리에서  
젊음이 지는 거리에서  
오빠 저는 무등산을 보았어요  
뜨거운 산의  
몸부림을 보았어요

(시, 김해화 - 낭독: 해나)

## 한 마음 한 노래 (시 Poem)

### 삼촌

나 서너 살 적 흙담벼락 아래서 쪼그려앉아  
낮으로 팽이를 깎아 돌리며 놀아주었던  
삼촌이 있었다 어른 같은 중학생이었다

언제부턴가 삼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앞집 판자 울타리 너머로 주먹밥을 넘겨주시던 할머니와  
울타리 너머에서 주먹밥을 받는 낮익은 두 손을 보았다  
할머니는 그 손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북동 굴다리에서 맞닥뜨린 순사를 때려눕히고  
피해다니는 것이라고  
어른들 틈에서 엿들었다

어린 나의 안에서 태어난 그리움이  
먼 하늘가로 뿌리를 내리고 싹들 틈을 뚫었다

해방이 됐다는 어느 날 저녁  
집에 있던 삼촌이 끝내 붙잡혀갔다  
오라에 목이어 가는 모습을 먼발치로 보면서  
나는 담벼락으로 돌아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나의 그리움은 크게 다쳐 피를 흘렸다  
그러고도 무럭무럭 자라 먼 하늘가를 기웃거렸다

육이오가 터지고  
개성형무소에 갇혀 있던 삼촌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북으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까지도 삼촌은 소식이 없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했으나  
그리움은 칠십이 지나서도 자랄 대로 자라  
먼 하늘가 언저리에  
가슴 뛰는 산 굽이굽이로 달려갔다

(시, 이성부 - 낭독: 김웅)

##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창세기 Genesis 4, 9-10 & 아모스 Amos 5,24

화두: "5.18 광주항쟁, 역사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일자: 2017년 5월 14일

### 창세기 Genesis 4, 9-10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your brother Abel?"

I don't know," he replied. "Am I my brother's keeper?"

The LORD said, "What have you done?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 예언자 아모스의 선언 Amos 5,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failing stream!

## 한 마음 한 노래 (시 Poem)

광화문 이순신

이순신의 생애와  
동상을 세운 조각가의 삶은 다르다  
조각가의 삶과 동상을 세우게 한  
정치인의 삶은 다를 것이다

온갖 차량이 분주히 맴도는 거리에  
넓은 무기 큰 칼을 짚고  
침묵으로 서 있는  
광화문 이순신이며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은  
인간 이순신의 삶에 닿아 있는가  
조각가의 예술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정치인의 이념에 관계되는가

너무도 당당하여 오히려 서글픈  
당신의 등 뒤에는 오색 단청  
광화문이 굳게 완강히 닫혀 있고  
정치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며 길을 가는  
시민들 앞에서  
당신은 무슨 넓은 이데올로기를 지키려고  
네거리에 서 있는가  
광화문 이순신이며.

(시, 최두석 - 낭독: 장동인)

#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Song)

## 임을 위한 행진곡 Marching for our Beloved

시: 백기완  
곡: 김종률

Dm F

사 . 랑 도명 . 예 도 이 름 도 남김 없 이  
We will leave no - ho - nor, no love, no fame

동 . 지 는 간 데 없 고 깃 . 발 만 나 부 껴  
Our dear comrades have gone, only our flag still waves

Gm Dm A7 Dm

한 평 생 나 가 자 던 뜨 거 운 . 맹 . 세  
We promised to keep struggling on, long - as we shall - live

새 날 이 올 때 까 지 흔 들 리 . 지 말 자  
Until a new day co - mes we shall not be swayed

Gm Dm C F A

세 월 은 즐 러 가 도 산 천 은 안 다  
Streams and mountains re - member, as the years pass by

Gm Dm E E7 A A7

깨 어 나 서 외 치 는 뜨 거 운 합 성  
Awakened spirits are call - ing us as they shout this cry

Dm Gm F A A7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 자 여 따 르 라  
We - keep on marching on, keep - faith and follow us

Dm F A Dm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  
We - keep on marching on, keep - faith and follow us *Fine*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벗들이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벗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직은 비록 우리가 소수이고  
힘 또한 저들보다 적은 듯하여도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옳지 않은 자들과의 싸움이므로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이므로  
어쩌면 이미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로운 우리 몇몇만 손을 잡고 있다 해도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함께 이 길에 나섭니다.  
내 그대들과 만나면  
오월 나뭇잎처럼 마음 기쁘게 사래치고  
그대들 아름다운 발걸음과 함께 가노라면  
정겨운 물소리에 발목을 담근 듯한 것은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란 솟음치는 믿음 때문입니다.  
벗들이여 그때까지 마음을 잃지 않는  
굳은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날이 정녕 가벼이 오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까지  
굳게 잡은 손 놓지 않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벗들이여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아멘 Amen**

\* 오늘 기도문은 도종환 시인의 시 "벗들이여 우리는 승리합니다"입니다.